



2017 11. 30 목

2018 04. 29 일

———— 기획전시실

녹두꽃

녹두칼럼
이상성 / 한림대 교수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기획 ① 명사대담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기획 ② 지역대담
정수영 / 남원기념사업회 회장

참여자 유족 인터뷰
함기영 / 참여자 함윤찬의 손자
유적지 탐방
남원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정희성

이 겨울 갑오농민전쟁 전적지를 찾아
 황토현에서 곰나루까지 더듬어서
 나는 이 시대의 기묘한 대조법을 본다
 우금치 동학혁명군 위령탑은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가 세웠고
 황토현 녹두장군 기념관은 전투화가 세웠으니
 광주항쟁 시민군 위령탑은 또
 어떤 자가 세울 것인가
 생각하며 지나는 마을마다
 텃밭에 버려진 고추는 상기도 불고
 조병갑이 물세 받던 만석보는 흔적 없는데
 고부 부안 흥덕 고창 농투사니들은 지금도
 물세를 못내줬다고 아우성치고
 백마강가 신동엽 시비 옆에는
 반공순국지사 기념비도 세웠구나
 아아 기막힌 대조법이어 모진 갈증이어
 곰나루 바람 부는 모래밭에 서서
 검불 모아 불을 켜지르고
 싸늘한 성계육 한점을 씹으며
 박물동이 건네주는 막걸리 한잔을 단숨에 천다

작품설명

흔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거나 '역사는 두 차원의 시간성을 갖는다'고 얘기한다. 또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라고도 한다. 1894년 이후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민족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浮沈)으로 갑오년의 역사는 반란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공존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념사업 본의를 꿰뚫는 시인의 눈이 매섭다.

정희성 鄭熙成

경남 창원 출생. 서울대 국문과 졸업.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반신(半身)」이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달창(踏窓)』(1974), 『저문 강에 삼을 씻고』(1987),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1999) 등이 있다.

【편집자주】

이 코너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발표된 한국문단의 시 작품 중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한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시명	기사 제목
1월 12일	연합뉴스	봉기 시작 124년, 조병갑 공덕비는 지금도
1월 12일	전북일보	헌법개정, 동학·농업으로 '법고창신' 실현하자
1월 15일	전남일보	정유재란 2000구 화장한 '二千骨' 동학혁명 댄 치열한 스무날 격전
1월 17일	연합뉴스	정읍시립박물관, 지역 인물·동학농민혁명·독립운동 유물 매입
1월 18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과 헌법전문
1월 23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
1월 30일	NEWS1	'동학'전봉준 동상 종로 건립...서울시 최종결정 남아
2월 12일	위키트리	이대훈 시인, 동화책 '열세 살 동학대장 최동린' 펴내
2월 21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 달의 문화가 있는 날
2월 21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국가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2월 26일	NEWSis	정읍 동학마라톤대회, 3600여 건각 참가
2월 28일	프레시안	고부 들판에서 동학농민들의 함성을 듣다
3월 2일	금강일보	동학농민군의 넋, 송고한 뜻 기리다
3월 5일	OhmyNews	혁명했던 동학 언니, 스물두 살 이소사
3월 5일	동아일보	[어린이 책] 어린 몸으로 견뎌낸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3월 5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학술 연구논문 공모
3월 13일	전라일보	대통령 개헌안 '농업가치·동학정신' 반영되나
3월 14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9년만에 재개
3월 21일	경북일보	동학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시급함
3월 22일	전북일보	문화가 있는 날 팍팍 누리세요
3월 22일	전라일보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3월 26일	영남일보	'기충민의 결기' 동학농민운동은 촛불집회의 시초였다
3월 26일	남도일보	동학농민혁명의 영웅, 무안의 배상옥
3월 27일	광주일보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5·18 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문화

-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정희성 / 횡토현에서 곰나루까지
- 04 **녹두칼럼**
이삼성 /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 06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회 운영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동학농민혁명 산국역총서 9』 발간 소개
- 09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유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지정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미래유산 선정
동학농민혁명 주제 웹툰 제작, 마라톤대회 개최 등
- 12 **기획 ① 명사대담**
이만열 /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20 **참여자 유족 인터뷰**
함기영 / 참여자 함윤찬의 손자
- 26 **유적지 탐방**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 33 **기획 ② 지역대담**
정수영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39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 42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驀川)

전북 남원시 광한루 앞에 흐르는 요천(驀川) 독 위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
이곳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장소이다.

19세기 동아시아 사회에서 농민 기반 혁명의 성취와 좌절, 그리고 유산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사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공유했다. 특권적 사회계층이 권력과 자원은 독과점하고, 책임과 의무는 면제된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는 게 그 하나였다. 근대 서양의 경제사회적 및 정치적인 혁명적 변화에 의해서 비교되는 국면이기에 이 과제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더욱이 여러 동아시아 사회들은 왕조체제의 말기 중후군을 겪고 있었기에 봉건질서의 적폐는 특히 심각한 상태였다. 또 하나의 과제는 경제혁명과 정치혁명을 기반으로 팽창하며 동아시아 사회들을 압박해오고 있던 서양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반외세(反外勢)였다.

중국, 조선,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담당한 사회 계층은 농민층이었다. 중국과 조선은 가까스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세에 의한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있었다. 활력과 자기 혁신의 능력을 상실한 왕조체제에서 농민층이 반봉건과 반외세의 임무를 떠안은 것이다. 필리핀은 이미 16세기 중엽 이래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다. 19세기 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식민주의 국가권력이 교체된다. 이 국면에서 필리핀 농민층은 반외세 독립과 반봉건 사회혁신의 과제를 자임하고 나섰다.

태평천국에 참가한 농민층은 새로운 국가권력을 구축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조선의 동학농민세력은 처음엔 반봉건에 치중했으나 청국과 일본이라는 외세가 개입하자 반외세를 위해 봉건 국가와 화약(和約)을 맺고 한걸음 뒤로 물러난다. 그로써 반봉건의 동력은 꺾이게 된다. 봉건 국가는 그 틈을 타서 외세와 결탁하여 농민혁명을 파괴했다. 필리핀의 농민층은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데에 일정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 독립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이 나라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자 필리핀 농민들은 독립전쟁의 주축으로 나선다.

중국, 조선, 필리핀에서 반봉건과 반외세를 추구하여 일어난 농민층의 무장기의(武裝起義)는 결과적으로는 모두 수십만 명의 희생을 남긴 채 좌절하고 말았다. 태평천국은 스스로 국가를 세우자마자 초심을 잃고 부패한 왕조국가로 전락했다. 필리핀 독립전쟁은 처음엔 반외세 못지않게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주의 혁명과 사회변혁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곧 스페인 식민 시절부터 기독교 세력이었던 지방의 사회경제적 엘리트집단과 결합하면서 사회혁명은 물론이고 반외세의 추동력도 상실한다. 미국의 폭력 못지않게 내부의 혁명적 기상의 상실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필리핀 독립전쟁의 방식과 그것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자행한 폭력의 양상은 훗날 베트남전쟁에서 판에 박은 듯이 되풀이된다.

동학농민혁명은 국가를 세우지도 않았고, 필리핀의 독립전쟁 세력처럼 사회 기독교세력과 타협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혁신과 반외세를 담당하는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지속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일본과 친일파 정부가 전개하는 광범한 폭력적 진압으로 동학농민혁명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후 조선 사회는 그 내면에서 정신적 진공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사회를 혁신하고 공동체의 독립과 자주를 지향할 주도적인 사회세력의 구성이 불가능했다.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같은 일종의 시민층이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그 영향력과 의미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인구의 절대 주력인 농민층 안에서의 혁명의 동력이 폭력으로 파괴된 이후의 조선 사회는 전반적으로 동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허울에 불과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이었던 그 전 10년에 걸친 민씨 척족 세도정치의 적폐와 습관적인 외세의존의 전통은 대한제국 선포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제국 선포 후 조선의 사회개혁은 갑오경장 이전으로 오히려 후퇴했고, 전제 왕권의 강화에 몰두한 채 러시아 등 외세 의존의 위험한 공중제비놀이가 계속되었다. 망국과 식민지의 운명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산이 서너 번 바뀔 뒤에야 온 좋게 일본 제국이 망하는 바람에 '해방'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룬 해방이 아닌 탓에 분단의 운명에 직면했고, 그것이 원인의 하나가 되어 전쟁을 겪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잇따른 개입으로 반도의 허리에서 분단은 다시 도돌이표가 되었다. 그 후 수십 년간 북한은 전체주의, 남한은 반공 파시즘의 역사에 시달려야 했다. 무책임과 탐학과 외세의존으로 일관하는 국가권력과 사회지배층을 대신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의 역할을 자임한 조선 농민층의 비전과 활력이 국가가 결탁한 외세에 의해 철저히 파괴됨으로써 어떤 불행이 뒤따랐는지를 일별한 것이다.

중국의 태평천국 이데올로기는 반외세를 내세우면서도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자기식의 변형을 추구했다. 결과적으로 태평천국에 있어 기독교는 전통적인 왕조체제에 새로운 외피를 씌우기 위한 것 이상이 되지 못했다. 필리핀 독립운동은 역시 서양에서 발원한 공화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앞세웠다. 의회주의를 도입했지만 결국엔 그 역시 사회 기독교층의 봉건적 특권에 서양 근대의 껍데기를 덧씌운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필리핀의 사회와 정치가 유서 깊은 엘리트 집안들에 의한 과두정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스페인 식민주의, 그리고 미국 식민주의 질서와 함께 필리핀 독립전쟁의 이념과 실천의 한 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선의 동학농민혁명은 동양의 전통적 사상들인 유·불·선(儒佛仙)을 이념적 자원으로 삼았다. 태평천국처럼 퇴역적(退嬰的)이고 부패한 국가권력 구성의 역사도 남기지 않았고, 필리핀 독립전쟁 지도부처럼 사회적 특권세력과 타협하지 않은 채 봉건 국가와 제국주의 외세의 결탁으로 소멸했다. 그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훗날 술하게 전개되는 불행 가운데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저항과 반외세 실천의 정신적·역사적 동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남을 수 있었다. 불행한 결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지만, 조선의 동학농민혁명은 그 장렬한 '전사(戰死)'를 통해서 오염되지 않고 영원히 탈색되지 않을 미래 지향의 사상적 자원이라는 크고 귀중한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었다.

이삼성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고, 1988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제국』 등이 있다. 제11회 단재상, 제38회 백상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사회 개최



2월 22일(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17년 결산안 및 보수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사항,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상황, 기념공원 조성 추진현황,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현황 등이 보고되었다.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2월 6일(화)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기부금품 지원 사업 타당성 심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4월 서울 종로구에 건립 예정인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에 기부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2017년 결산안, 제124주년 기념대회 개최 추진, 기념일 제정 추진상황 등이 논의 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개최



2월 13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과 함께 2018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업계획, 현안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특별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지도 위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획특별전을 갖고 있다. 2017년 11월 30일(목)부터 2018년 4월 29일(일)까지 이어질 이번 전시는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동학농민군의 이동경로와 일본군의 침략계획 등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1894년 당시 중국 관계자들의 기록

이병규 |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894년 조선의 농민들이 지배층과 외세에 저항했던 역사적 대사건이다. 이 혁명을 계기로 조선왕조체제가 무너졌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도 해체되었다. 평등·정의 사회 등 19세기 조선 동학농민군이 지향하였던 가치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혁명 정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는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역사의 왜곡과 축소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 부족은 오랜 시간동안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들을 유실해 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인식들이 모여 1996년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가 간행되면서 당시까지 발굴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가 대부분 정리되었다. 그러나 원문으로만 기록되어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책에 수록된 원 사료를 번역하여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6(총 6권)』을 발간하였다. 이후 출범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를 이어받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7~13(총 6권)』을 발간하였다.

기념재단은 이후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들을 새롭게 발굴 및 번역하여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1~5권, 2016년에 6~8권, 2017년에 9권을 발간하였다. 신국역총서의 내용은 번역문, 원문, 영인본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쉽게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신국역총서 9권에는 1894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淸國)에서 파견된 총병(總兵) 섭사성(聶士成, 1836~1900)이 쓴 종군일기(東征日記)와 당시 청(淸)의 북양통상대신(北洋通商大臣)이었던 이홍장(李鴻章) 대리자 원세개(袁世凱)가 동학농민군 및 조선 정부의 동태를 보고하고자 이홍장과 주고받은 문서인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그리고 청대(淸代) 총리각국사무아문 등의 교섭 안건을 정리하여 모은 자료집인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일부가 담겨 있다. 이 세 자료는 1894년 당시 조선의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13』,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9』는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www.e-donghak.or.kr)에 탑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동학농민혁명 총서를 통해 연구자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내에 소개된 적 없는 새로운 자료를 계속해서 발굴 및 번역하여 매년 새롭게 총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가 더욱 더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

- 『동정일기(東征日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국(淸國)에서 파견된 총병(總兵) 섭사성(聶士成)이 쓴 종군일기
-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국(淸國)의 북양통상대신(北洋通商大臣)이홍장(李鴻章) 대리자 원세개(袁世凱)가 이홍장에게 보고한 문서
-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청대(淸代) 총리각국사무아문 등의 교섭 안건을 정리하여 모은 자료집(일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지정



석남역사



종리원사부동화사



순교약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석남역사』, 『순교약력』과 『종리원사 부동화사』 두 권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신청하였다. 신청한 유물 두 권 모두 3월 9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193호(『석남역사』), 194호(『순교약력』과 『종리원사 부동화사』)로 각각 지정되었다.

『석남역사』는 전봉준 장군의 제자 박문규가 고부농민봉기와 황토현전투에 직접 참여하여 겪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이다. 『순교약력』은 남원출신 참여자 등의 전기이고, 『종리원사부동화사』는 남원지역 동학 교단의 연혁과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과 전라좌도 상황 등을 기록한 유물이다.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미래유산 선정

전주시는 2018년 2월 21일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의 기억이 오롯이 담긴 유·무형 문화자산 50건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유산에 1991년 전주시 완산칠봉에 건립된 '동학농민군전주입성비'도 포함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주제 웹툰 제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7년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웹툰 '갑오(甲午)-1894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석대들 전투'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조선 관군의 연합부대를 맞아 혈전을 벌인 석대들전투와 장흥군 설화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총 15화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 화마다 동학농민군의 고난과 한(恨) 그리고 농민군이 추구한 숭고한 정신이 잘 형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갑오'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정읍동학마라톤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정읍시가 후원하고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관한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지난 2월 25일(일) 정읍종합경기장 바깥 도로에서 개최되었다. 폴코스(43.195km), 하프코스(22km), 단축코스(10km), 건강코스(5km) 4개의 주 종목과 10개의 세부종목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36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전봉준 장군 탄생 162주년 기념행사 열려



2018년 1월 10일 고창군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전봉준장군 탄생 16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관계자들과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 전성준 사무총장, 지역단체 대표자 및 임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전봉준장군 탄생 162주년을 맞아 그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 19세기 초 홍경래 난, 1862년 전국 37개 지역에서 일어난 ‘임술민란’이라는 농민저항운동을 거쳐 조선후기 농민봉기의 정수(精髓)로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은 그 뒤 갑오개혁, 3·1대혁명,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까지 면면히 계승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렇게 민주화운동의 관점에서 보아야 그 진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 시 2018년 2월 5일(월) 13:00

장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자택

대 담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前국사편찬위원장



이번 호 명사대담에서는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인 이만열 교수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3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분과위원회 중 하나였던 '결정 및 등록심사분과'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동학농민혁명과 깊은 인연을 맺은 후 2015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힘쓰고 있다.

〈경력〉 제8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국제민간교류협회 대표, 서울상공직자윤리위원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등

〈수상〉 독립기념관 학술상(2008), 용재 석좌교수(2008), 제15회 상허대상(2004), 황조근정훈장(2003), 단재상(1992) 등

〈저술〉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문화과지성사, 1990),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두레시대, 1998), 『한국 기독교 의료사』(아카넷, 2003),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푸른역사, 2007),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지식산업사, 2014) 등

문병학

교수님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명사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교수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만열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김교신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5년 동안 꾸준히 해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일(국제민간교류협회 대표)을 그만두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서울의 올림픽 광경을 보고 코리언드림을 안고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들의 인권, 의료, 노동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해오다가 지난 주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제는 활동을 줄여나가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려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웃음)

문병학

한국 근현대사의 극심한 굴절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도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대한제국이 전후에는 반란사건으로 인식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동학(東學)이라는 사교집단의'난'(亂)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고양되고, 일제 식민사학 극복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 근대사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근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연구되고 인식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한국사 혹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그 의미에 대해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만열

저는 동학농민혁명을 아주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지배자 중심의 역사를 피지배자의 역사로 전환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민중들이 지배세력에 저항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조직화된 움직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지배를 받는 민중들이 지배층의 불의에 항거해서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일어난 우리 역사상 최초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혁명적 사건'입니다.

문병학

1960년 4.19혁명에 이어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1963년에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선거(10. 15.)가 있었습니다. 급박한 정치정세 속에서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전적지 산마루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1963.10.3.)이 건립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후대의 평가도 있지만 이 탑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을 '반란'에서 '혁명'으로 전환을 기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습니다. 나아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도 황토현전적지에 '갑오동학유적지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열

역사적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해석이 역사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은 독재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혁명'이 아닌 '반란'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도 전두환, 박정희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편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투표에 의해 권력을 쥔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독재자들은 그들의 본심을 감추고 민중이 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표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본질을 감추고 민중이 원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 해석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도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나 지역, 이해관계, 계층 등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저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자유토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평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그들의 본심과는 달리 자신이 잃은 민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을 세운 것일 뿐 진심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역사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해석을 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894년 발발 당시에는 왕조의 입장에서 동학난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일제가 조선민중을 독재식민권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인식 그대로 동학난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도 소수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4·19혁명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3·1대혁명과 4·19혁명으로 반민주세력을 타도하는 힘으로 계승되어 발전되어 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19혁명은 역사를 인식하는 혁명적 발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4·19혁명을 경험했던 역사학자들은 동학난이라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재평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4·19혁명은 민주주의의 열망, 민중 문화, 통일 의식 등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전두환 세력은 민중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호도, 변장시키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적인 재조명은 1980년대 한국사회에 도져하게 흐르던 민주화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기부터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서울과 전북, 전남, 충청, 경상 등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당시 11개 기념사업단체가 창립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 체험의회'를 구성하였고, 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국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식되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반란사건'에서 '혁명'으로 대중적인 역사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2004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교수님께서 심의위원회의 한 분과였던 '결정및등록심사분과'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결정 및 등록심사를 하던 시기에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만열

오랫동안 '결정및등록심사분과' 위원장을 맡으며 느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후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했지만,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침묵,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한말, 일제 하, 4·19혁명까지도 계속되어 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된 역사인식, 역사교육을 부정하여, 참여자 후손들이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죄인시하고 역도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혁명에 참여하였던 분들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은 현재 파악된 수보다 훨씬 많을 텐데 찾을 길이 없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본질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많은 참여자들을 발굴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가치를 널리 기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혁명이 지닌 역사적 가치의 세계화 등을 추구하고자 2015년 6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데,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갖는 의미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과 우리 재단 연구조사부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해 6월 28일 문화재청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혁명 기록물이 등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큰 성과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을 선정하는 이유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인류가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농민혁명으로서 세계적 의미가 있으며,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서양의 농민전쟁과 비교해보아도 근대적인 진보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지배자의 폭압적 전제정치가 그런 고귀한 인간을 억압할 수 없다고 확신함으로써 불의에 항거하는 힘의 원천이 되어 정의로운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인간관과 가치관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제대로 보존, 번역하여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세계화되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세계화시키게 되면, 동학사상이 갖고 있는 자유와 고상한 인간관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시켜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유네스코 등재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 측에서도 신속한 정보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학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혁명 기록물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남아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만열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회의 등을 거치면서 우선 제출한 보고서를 계속 수정·보충해가면서 검토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기술적·법적 차원에서 추가로 증빙해야 할 서류를 작성·보완하고, 올해 3월 즈음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기록물 등재관련 문헌들의 영문번역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병학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1894년 갑오년의 역사를 '동학농민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 이제는 법의 규정에 따라 교과서도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만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중이 힘을 모아 조직적으로 일어난 혁명입니다. 우리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든다면 동학농민혁명, 3·1대혁명, 4·19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과의 연계성 속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1운동이 아니라 3·1대혁명,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학자들은 '운동'과 '혁명'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혁명은 예컨대, 4·19혁명 같이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라는 새로운 체제로 바꾸듯, 체제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체제 변혁을 위해 일어나 사건이지만, 가시적으로 체제 변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교과서 집필에 임한 학자들은 법에 '동학농민혁명'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대답이 궁하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3·1대혁명,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용어를 학계, 정치권, 민중들에게 안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운동의 큰 봉우리인 이 세 사건을 '혁명'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재화의 방향, 혹은 정신 계승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만열

한국의 역사가 짧은 시간동안 크나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의에 바탕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촛불집회로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한 촛불집회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다양한 소통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는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정의와 평화, 자유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역사적 현상이었습니다. 현재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지도자나 민중은 민주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랏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보국안민 정신과 구국애민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며, 당면한 난제를 풀어갈 지혜와 경륜일 것입니다.

문병학

아쉽지만 오늘 대담은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내내 강전하시기를 빕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함완석의 손자 함기영

Q 이번 호 유족 인터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함완석의 손자 함기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함 윤자 찬자, 함운찬의 손자 함기영입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들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 유족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남겨주고자 했던 조부님의 뜻대로 그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는지요?

A 60년대죠. 제가 열일곱 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족보를 자주 봤어요. 그러다보니 집안 내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조 중에는 조선 개국공신으로서 형조판서와 8도 관찰사까지 역임한 분도 계시고, 영의정을 지낸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이셨던 함태영 같은 분도 제 집안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던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집 한 칸 없는 처지로 몰락해서 교회 사택에 빌붙어 살거나 남의 집 문간방을 전전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반항심이 큰 사춘기 때 어머니께 화를 내며 물었더니 아버지께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부께서는 총상의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조모님도 제 아버지를 낳던 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큰할아버지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조부께서는 혁명에 참여하셨다가 어깨에 총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 큰할아버지는 동생인 제 조부님을 데리고 진안으로 피신하여 겨우 겨우 살았다고 합니다.

Q 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후손들이 삶이 여의치 못했을텐데..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울러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계시는지요?



A 어머니 말씀이, 함씨집안이 벼슬도 많이 한 집안이어서 믿고 시집왔는데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안이라는 산촌에서 자식 둘을 낳은 다음에야 비로소 친정을 가게 되었대요. 그때 친정의 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어머니께 살림살이 형편으로 듣고 깜짝 놀라 그길로 처갓집 뿌리가 있는 김제로 이사를 하게 했답니다. 그 때가 1935년 즈음이었답니다. 조부께서 동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부유했던 집안이 풍비박산 날 일도 없고 잘 살았겠지요. 처음에 조부님 얘기를 듣고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철이 좀 들고 나서부터는 조부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님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조부님께서는 정의를 택하신 거잖아요? 저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조부님의 정의로운 파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웃음)

Q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던 1994년을 전후하여 유족회와 전국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어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헌신적으로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의해 조부이신 함완석 님도 참여자로 인정되고, 선생님도 유족으로 등록이 되었지요? 그 무렵 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근래에 와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백주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중적으로는 도적들이 일으킨 반란사건으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기부터 백주년을 준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서울과 전북 등지에서 백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유족들의 모임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

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운 박사님, 그리고 손주갑 선생님이랑 함께 문선생도 그때, 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 때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하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유족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백주년 때 전국적으로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족회 참여자 수도 늘어나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지요. 이후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참여자와 그 유족 등록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유족들이 함께하게 되었지요. 저도 그때 자료를 찾아서 조부님을 참여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저를 참여자 후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을 등록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다행히 지난 연말에 특별법이 개정되어 다시 유족등록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체제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고, 일제의 불법적인 국권침탈에 맞섰던 애국애족 정신의 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면서 참여자는 '역적'으로, 그 후손들은 '반란군의 후손'이라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겪은 일들을 말씀해주십시오.

A 우리 조부님은 가을걷이 때 나가셨다가 총상을 입고 돌아오셨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일본군을 쫓아내려고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주우금치에서 총상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조부께서 소싯적 함운찬이라는 함자를 쓰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여자 등록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에 함완석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이후에도 이곳저곳 부평초처럼 떠도는 생활을 하시면서 이름을 4개씩이나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조부께서는 총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제 아버지의 삶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큰할아버지 호적에 적을 두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지요. 그러다보니 저 또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자랐고, 학비를 제때 못 내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중퇴를 해야 했어요. 이렇게 자손대대로 몸도 마음도 참으로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에 빌붙어 친일을 한 집안은 3대가 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신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가난이 대물림되었지요. 이게 제대

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Q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의롭게 살다 가신 조부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터인데, 평소에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다" 그런 얘기를 듣거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A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1960, 70년대 급변하는 시기에 불합리함과 모순에 대해 신문에 기고하거나 데모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의 노동권 보장을 내세우며 택시업계 최초로 파업을 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걸린 적도 있었고, 현대건설에 몸담고서 중동에 나갔을 때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회사와 도급제를 놓고 교섭하여 성사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공정기간이 훨씬 단축되면서 톡톡히 성과를 봤고, 노동자들도 처우가 개선되는 결실로 이어졌던 일도 있었지요. 이렇듯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조부님의 정의로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웃음)

Q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단체, 그리고 역사학계 연구자 등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아직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후손으로서 누구보다도 기념일이 조속히 제정되기는 바라는 마음일 텐데, 이점에 대해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1993년도에 구성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25년 동안 유족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념일 제정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기념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두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기념사업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자기 지역, 자기단체와 연관된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하면 끝이 없는 일이지요. 갑오년에 선열님께서 지엄적인 이악을 얻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저지하고자 한 목숨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갑오선열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내려

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둘러 합의가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Q 앞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1993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 이듬해인 1994년 3월 3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창립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립된 때로부터 23년 만인 2017년 5월 8일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족회 활동을 해온 선생님께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지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겪은 말 못할 억울함과 고난을 이제라도 정부기관에서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하니 기뻐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된 후 구성된 첫 번째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게 되어 더욱이나 기쁘고, 또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족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기 이전에는 유족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돈을 털어서 어렵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사단법인으로 허가되었으니까 후원금도 모으는 일 등이 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참, 지난 해 열린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때 선생님께서 공로패를 받으셨지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나가는데 애쓰신 공로로 상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활동계획 또는 각오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사실 제가 받아야 할 상이 아닌데 받아서 쑥스러웠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비로 유족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주십니다. 이 상은 그동안 유족회에 참여하며 성심성의껏 뛰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한 상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학농민혁명은 그저 모두가 다함께 잘 살자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오선열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힘닿는 데까지 저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유족발굴과 지원, 정신 선양 사업과 계승사업 추진에 힘을 생각합니다.

Q 선생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첫째, 1860년대 동학 창도 초기의 역사 둘째, 동학농민혁명 핵심 지도자 김개남의 활동 거점 셋째, 동학농민군과 운봉 민보군의 치열한 전투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1860년대 동학(東學) 창도 초기의 역사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는 1860년 4월 5일 경북 경주 용담에서 한울님을 만나는 종교체험을 통해 영부와 주문을 받아 무극대도(無極大道) 또는 천도(天道)를 체득, 동학을 창도하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수운을 찾아와 경상감영 관원의 주목을 받자 1862년 12월 남원으로 피신하여 동학의 주요 경전을 집필하였고, 이때 집필한 논학문(論學文)이라는 저술에서 동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핵심 지도자 김개남의 활동 거점

동학농민군은 고부봉기·무장기포·백산대회·황도현전투·황룡강전투를 거쳐 파죽지세로 전라도 수부 전주성을 함락시켰다. 이후 청·일 양국의 군대 파병으로 정치정세가 급박해지자 조선정부와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 서 나와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를 설치, 폐정을 개혁하였다. 이때 김개남은 전주성에서 나와 순창, 동북 등지를 돌아 6월 25일 남원으로 들어와 호남 좌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그 세력을 떨쳤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이 경북공을 불법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자 반일항전을 위해 전봉준과 7월 15일 남원대회 열기도 했다.

셋째, 동학농민군과 운봉 민보군의 치열한 전투지

동학농민군 재 기병으로 김개남이 10월 14일 정예부대를 이끌고 복상한 후 운봉의 박봉양 민보군이 농민군을 공격하여 10월 24일 남원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반격 소식에 민보군은 나흘만인 10월 27일 남원성에서 퇴각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민보군의 남원성 침략에 대비하여 여원치·방아치 부근에 진을 쳤고, 11월 14일 새벽 박봉양 민보군의 공격을 받아 15일 아침까지 치열하게 접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크게 패배하여 11월 28일 다시 민보군에게 남원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기념비] 동학성지남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251

동학 교조 최제우가 1861년부터 1862년 3월까지 교룡산성에 있는 은적암에서 동학의 주요 경전을 집필하고, 포교 활동을 펼친 역사적 의미를 등잔과 호롱불로 형상화한 기념시 설물이다. 남원문화원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2005년 제작·설치하였다가 약 50미터 위쪽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 동학성지남원 기념비

[기념비]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유적지 교룡산

•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251-20

동학 교조 최재우의 은적암 기거와 김개남이 남원관아에 대도소를 두고 교룡산성에서 주둔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11월 남원시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설치하였다. 기념비 기단부 전면에 동학과 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고, 기단 옆면에는 김가(劍歌)의 가사가 새겨져 있다.



▲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유적지 교룡산

은적암(隱蹟庵) 터

•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16-1(교룡산성 내)

동학 교조 최재우가 1861년부터 1862년까지 머물면서 동학의 교리를 정리한 곳임을 알리기 위하여 1989년 10월 천도교 서울교구에서 표지판을 세웠다. 은적암은 원래 남원 교룡산성 안에 있는 선국사 부속 암자 덕밀암(德密庵)이었는데 최재우가 이곳에 머물면서 당호를 은적암으로 바꿨다고 한다. 동학의 주요 경전인 논학문(論學文), 권학가(勸學歌), 교훈가(敎訓歌), 도수사(道修詞) 등이 이곳에서 집필되었다.



▲ 은적암 터원경

[표지목] 김개남 동학농민군 주둔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436

동학농민혁명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개남이 주둔하였던 교룡산성 입구에 세워진 이 표지목은 1993년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세웠다. 김개남은 1894년 6월 25일 남원관아를 차지하고 전라좌도 도회소(全羅左道 都會所)라는 정청(政廳)을 설치, 농민군 군제를 오영(五營)으로 편제하고 인근 각 고을로부터 무기와 군량을 거두어들였다. 반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봉준과 함께 7월 15일 남원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7월 17일경 임실군 성수산에 있는 상여암(상이암(上耳庵))으로 들어갔다가 8월 25일 남원으로 돌아온 김개남은 부대를 정비한 후 10월 14일 정예부대를 이끌고 반일항전을 위해 남원을 떠나 전주 등지로 북상하였다.



▲ 김개남동학농민군주둔지 표지목

김개남(金開南, 1853~1894)

태인현 산외면 동곡리에서 태어난 김개남의 본명은 영주이고, 자는 기선으로 김기범이라고 불렸다. 19세 때 전주 구이면 원터의 연인이씨와 결혼하였으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상처(喪妻)하여 다시 외가인 임실 청룡면 향교리 전주이씨와 재혼하였다. 개남(開南)이라는 이름은 동학과 관계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손바닥에 개남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고쳤다고 전해진다. 개남(開南)이라는 이름은 '남 조선을 개척한다'는 〈정감록〉류 도합 비기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남이라는 이름을 1890년 전후 동학 입도 전후부터 사용했는지 혹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부터 사용했는지 하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김개남은 재혼 이후 20대 때 외가(外家)이자 처가(妻家)인 임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고려(高麗) 태조 왕건과 조선(朝鮮)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위해 임실군 성수산(聖壽山)에 있는 상이암(上耳庵)에서 기도를 했다는 전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김개남이 남원을 장악한 후 상이암으로 들어가 상당 기간 머물렀다는 사실을 두고 왕을 꿈꾼 김개남의 권력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동학농민군 대도소 터

-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192-4

김개남이 남원에 들어와 대도소를 설치한 옛 남원관아 터다. 남원관아에 대도소가 설치되었던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헌이 있던 자리에는 남원군청으로 활용되다가 이전하였고, 현재 남원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 동학농민군 대도소 터 (현재 남원문화원)

[기념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

- 전라북도 남원시 쌍교동 52-1

요천(蓼川)은 동학농민군이 남원에 주둔하면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곳이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광한루 앞 요천 독 위에 2007년 남원시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주변을 시민휴게공간으로 정비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蓼川) 기념비(원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

남원의 젓줄인 이 요천변은 동학농민혁명(1894) 당시 전라좌도 농민군을 총 지휘했던 김개남 장군이 전봉준 장군과 함께 7월 15일(음력) 수만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남원대회를 개최하며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補國安民)의 기치를 드높인 역사적 장소이며, 경복궁을 침입하여 국권을 훼손하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서 농민군이 훈련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훈련하였던 전라좌도 농민군의 정예부대는 청주성 공격에, 남은 병력은 방아치(남원시 산동면)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은 당시의 원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귀 기울이면 그때 농민군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비문 전문(全文)

[기념비] 동학농민혁명 백두대간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657-1

남원에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여원치 정상부근 도로변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동학농민군과 운봉의 박봉양 민보군이 1894년 11월 14일 새벽부터 15일 아침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장소임을 알리기 위해 2008년 11월 22일 남원시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설치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백두대간 기념비(근경)

[기념비] 동학농민혁명 방아치 전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391-5

동학농민군 방아치전투를 기념하여 2007년 11월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세운 기념비이다.



▲ 동학농민혁명 방아치전투지

[기념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쪽뜰(籃坪)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435-4

운봉 박봉양의 민보군이 남원성을 공격해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1894년 10월말부터 11월 13일까지 동학농민군이 진을 치고 있었던 장소이다. 남원에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24번 국도변 요천삼거리, 방아치와 여원치가 갈래지는 지점에 서 있는 이 기념시설물은 2009년 11월 21일 남원시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설치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쪽뜰 기념비(근경)

[기념비] 갑오토비사적비(甲午討匪事蹟碑)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49-1(서림공원)

운봉의 토호(土豪) 박봉양(朴鳳陽)이 민보군을 일으켜 동학농민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새겨진 기념비이다. '박봉양(朴鳳陽) 불망비'라고도 불리는 이 비는 운봉초등학교 앞 도로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발견 당시 윗부분이 깨져나간 상태였으며, 마모가 심해 해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이 비를 1994년 지금의 위치에 옮겨 세웠다.



▲ 갑오토비사적비 근경

참고자료

- 「전라도 임실현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전북사학』(19,20호) 이진영, 1997.
- 「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표영삼, 2004.
-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참여지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 「甲午略歷」,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5』, 참여지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 「방이치전투 전라북도 농민군 제향」,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7.

남원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_ 2018년 2월 14일(수) 10:30

장 소_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대 담_ 정수영 |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문병학

이번호 『녹두꽃』 지역대담에는 전북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정수영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회장님 자기소개와 함께 근황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정수영

반갑습니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정수영입니다. 부족한 제가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중책을 맡은 지 벌써 한해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은사님이자 우리 초대 남원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한병옥 선생님을 모시고 기념사업회 창립을 준비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십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원 기념사업회 창립 초창기 때부터 심부름을 하다가 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어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문병학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2004년에 창립되었지요? 한병옥 선생님이 창립준비는 물론이고 초대 회장을 맡은 이후 근 10년 가까이 애쓰신 것으로 아는데, 남원기념사업회의 창립 배경 혹은 그 연혁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수영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2004년 5월에 창립했으니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남원지역 동학조직을 체계화한 대접주 김홍기의 증손 김동규 선생님 등등 몇 분이 기념사업회를 조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에 몸담고 계시던 한병옥 위원장님을 찾아갔지요. 그렇게 해서 불모지인 이곳 남원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고, 한병옥 선생님께서 초창기 8년동안 조직을 애지중지 키워오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황의동 회장님이 4년, 그리고 제가 회장을 맡아 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병학

남원지역에는 1860년대 초 동학(東學) 창도 초창기 역사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 김개남 장군의 활동의 본거지로서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수영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운 최제우 선생은 1861년 12월 교룡산성에 있는 선국사 암자인 덕밀암에서 6개월 간 체류하였습니다. 그곳을 은적암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 머물며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상당부분 저술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은적암에서 저술한 『논학문』을 통해 ‘동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기술하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남원을 거점으로 하는 포교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1890년대에는 남원지역에 동학이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호남 동학의 근원이었던 남원은 동학이라는 사상과 농민들의 혁명이 공존했던 지역이며, 김개남 장군의 근거지로서 전라좌도 동학농민군 활동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문병학

남원기념사업회 활동에 참여자 후손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지요?

정수영

김개남 장군과 함께 남원을 점령한 김홍기 대접주의 후손 김동규 선생님, 전라좌도를 대표한 류태홍 접주의 후손 류윤근 선생님 두 분이 기념사업회 창립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함께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 김동규 선생께서 수십 년간 보존해온 ‘남원군종리원사 부동학사’, ‘순교약력’ 등을 통해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원지역의 대접주였던 김홍기 선생의 묘가 임실군에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표지석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예산으로 행정구역이 다른 임실에 기념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홍기 대접주 묘가 있는 임실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개남 장군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킨 후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성 밖으로 나와 집강소를 설치하고 활동하던 시기인 6월 12일경부터 김개남 장군은 순창과 지금의 전남지역인 옥과·담양·동북·낙안·순천·곡성 등을 순회하면서 세력을 확장한 후 6월 25일경 남원성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개남 장군이 남원성에 주둔하면서 요천변에서 농민군이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원 기념사업회에서 매년 요천변에서 다양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수영

남원은 서쪽으로 순창·동북, 북쪽으로 임실·오수·장수, 남쪽으로 구례·순천, 동쪽으로는 인월·운봉을 넘어 경상도 함양지역으로 연결되는 요충지입니다. 김개남 장군은 이곳에 주둔하면서 전라도는 물론이고 경상도까지 연계하여 세력을 떨쳤습니다. 김개남장군은 남원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재봉기를 준비할 때 상당히 격렬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무래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욱 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기와 군량,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양반과 부농, 관군의 것을 빼앗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김개남 장군이 보수층이 두터운 남원에서 거칠게 행동했던 터라, 지금까지도 기득권 세력은 남원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문병학

남원 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방아치전투 위령제를 매년 자내고 있지요? 남원 동학농민군 추모제례 의식을 비롯하여 남원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선양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창립된 이후부터 방아치전투위령제를 산동면 부절리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8회 동학농민군 방아치전투 추모제부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광한루 앞 요천변에서 제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남원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주제 학생글쓰기대회, 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왔습니다. 한편으로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급학교 교사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요청을 했고, 일본군도 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정부와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맺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 폐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일제가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찬탈내각수립, 청일전쟁을 도발합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이 남원에서 이른바 '남원대회'를 열어 반일 민족항쟁인 제2차 봉기를 위한 준비단계로 들어갑니다. 남원대회에 대한 기념사업 계획은 어떤지요?

정수영

남원대회는 일본군의 침략에 분노한 농민군 내부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농민군에게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동학교도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원대회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2차 봉기의 전초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농민군 내부의 이견을 좁히고 결속을 다지려했다는 점에서 남원대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남원 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군 남원대회'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할까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념일 제정 등등 지역과 단체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원대회'에서 교훈을 얻어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문병학

남원지역 동학농민혁명에서 1894년 11월 방아치, 운봉 등지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과 민보군 사이의 전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아치전투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정수영

남원시내에서 산동면 부절리 방아치 입구까지 약 8km 정도입니다. 방아치 입구에 이르기 직전에 유명한 깃대바위가 있지요. 방아치전투에 참여한 농민군은 그 수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남원에서 출발한 농민군 선두가 쪽뜰에 도착하였을 때도 남원의 농민군 후미는 출발도 못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투에 참여한 농민군들이 부역문짜를 방패로 삼고자 떼어가서 그 지역 부역문짜가 남아나질 않았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민군이 전투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지금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가 깃대바위 앞 사야를 막아 넓은 쪽뜰을 볼 수 없지만, 당시 방아치전투 때 농민군이 깃대바위에 깃대를 꽂고 드넓은 쪽뜰에서 전열을 다듬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보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동학농민군은 방아치를 넘어 운봉을 점령하여 경상도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민보군과 치열하게 접전을 벌여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문병학

초기 동학사상이 전파되던 때의 수운 최재우 선생님이 기거했거나 활동했던 역사 현장들에 기념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요? 기념시설물을 설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남원에 있는 기념시설물 중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광한루원>이라는 표지석입니다. 1894년 11월 28일 민보군에게 남원성을 빼앗기고 물러난 뒤 많은 농민군들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잡혀 성 밖 저자거리에서 참살 당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광한루원 정문에서 보이는 잔디광장 시작지점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은 국가사적지라서 기념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정문 옆 서쪽 주차장 부근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광한루원'이라는 표석을 2014년에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은적암 터 표지석>입니다. 교룡산성 흥예문에서 20여분 올라가면 수운 최재우 선생이 관의 탄압을 피해 은거하시던 은적암 터가 나오는데 1989년 천도교에서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한 사람인 백용성 스님의 첫 출가지이기도 한 이곳 은적암은 수운선생이 동학을 밝히는 논학문을 집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동학의 성지 남원>이라는 표지석입니다. 남원시 산곡동에 위치한 '동학의 성지 남원'이라는 기념시설물은 호불불 형태의 조형물로서 2005년 남원문화원에서 설치하였습니다.

기념관 방문단체

문병학

최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정유재란 당시 왜적이 전남 구례를 거쳐 남원으로 침략해 왔던 진출로에 불망비를 건립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의미와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남원에는 일제의 만행과 관련된 흔적이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고려 말 황산대첩, 조선시대 정유재란 당시 1만 명의 희생과 인질포획, 악랄하고 잔학한 코베기(귀베기) 살육 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의 잔인하고도 반성 없는 어리석은 태도는 앞으로 또 다른 침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합니다. 이런 점들을 상기하고 후대에 알리기 위해 일본군이 침략해왔던 진출로에 불망비를 세웠습니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경계인 밤재에 건립하였습니다.

문병학

끝으로, 못다 한 이야기가 있거나 녹두꽃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호남 동학의 근원이었던 남원은 동학사에 있어서도 경주와 더불어 동학의 2대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 동학창도는 표기되어 있지만 동학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고 다수의 경전이 완성된 은적암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학과 농민혁명이 공존하는 유일한 장소이자 일제 침략에 따른 아픔이 서린 남원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 의미를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애쓰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임원님들과 회원님 그리고 녹두꽃 독자들에게 하시는 일 마다 건승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문병학

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원의 역사적 전통 복원에 힘쓰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남원기념사업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
3	4

- ① 1월 1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 사학과 학생 9명이 올해 3월 예정된 정기 역사탐방을 위해 예비답사 차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전시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관람하면서 '지금, 여기, 나'의 삶을 되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② 1월 17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교육연구회 행복공작소 회원(40명)들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돌아보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 ③ 1월 20일,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술동아리 회원 8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두고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살펴보니 갑오년의 역사가 새롭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 ④ 1월 27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르완다봉사단 학생 15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전시실을 관람한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념관 방문단체



기념관 방문단체



5	6
7	8

- ⑤ 2월 1일, 성남시의회 의원 16명과 의사국 직원 10명이 기념관 및 전봉준장군 고택을 방문했다. 정읍시의회와 성남시의회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상호간 문화·관광·예술·교육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⑥ 2월 3일, 충북 괴산농민회 관계자 가족 1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전시실을 관람한 후 무영농민군위령탑, 동학혁명모의탑 등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⑦ 2월 6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3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정의와 그 가치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⑧ 2월 21일, 교육문화회관 어린이 30여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인솔교사에게 사전 교육을 받고 전시실을 관람한 때문인지 아이들은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질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하곤 했다.

9	
10	11

- ⑨ 2월 24일, 민주노총 경남지부 금속노조 43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전시실을 돌아보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 사람은 하늘이다라는 말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 ⑩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 공무원 20명이 직원 워크숍 차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둘러본 이들은 신분제를 개혁하여 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해 희생하신 갑오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방문 소감을 남겼다.
- ⑪ 3월 10일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20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12월 7일	광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 학술대회서 기념일 제정 논의
12월 8일	정읍시사	정읍 김생기 "책임있는 동학선양 사업 추진이 사회혁신"
12월 11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위상 재정립"
12월 11일	tbs교통방송	[서해성의 박학다설] '우금치 학살' 그 후....
12월 12일	공감신문	유성엽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12월 14일	매일일보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동학 최후의 전투, 장흥 석대들 전투' 웹툰 제작
12월 18일	투데이안	가야사 및 동학혁명기념공원, 전북자존의 시대 개막
12월 18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계승 1년을 뒤돌아본다
12월 18일	중부일보	성남아트센터 '금강, 1894', 동학농민운동 배경 뮤지컬
12월 19일	부안독립신문	방치된 '동학 집강소유적, 부안군 향토문화재 지정 추진해야'
12월 20일	프레시안	우금치 촛불 공주 민회, 이렇게 시작했다
12월 22일	전북도민일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즐겨 보아요~!
12월 22일	전북일보	전주시, 100년 뒤 보물 될 '미래유산' 선정
12월 22일	국민일보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등 미래유산으로 50건 선정
12월 22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때 파병된 중국인의 종군일기
12월 26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2월 26일	투데이안	정읍시의회, '동학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개헌추진 발자취'
12월 26일	경향신문	역사학자 이이화 '123년만에 전봉준 유언 이뤄진다'
12월 28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2월 28일	업코리아	전주동학농민혁명 추모공간 건립 '본격화'
1월 4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되나
1월 8일	새전북신문	"동학의 성지 남원 은적암 복원 관광자원으로 활용돼야"
1월 12일	NEWS1	동학농민혁명 계승 위한 국가사업 추진 기대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1월 12일	연합뉴스	봉기 시작 124년, 조병갑 공덕비는 지금도
1월 12일	전북일보	헌법개정, 동학·농업으로 '법고창신' 실현하자
1월 15일	전남일보	정유재란 2000구 화장한 '二千骨' 동학혁명 댄 치열한 스무날 격전
1월 17일	연합뉴스	정읍시립박물관, 지역 인물·동학농민혁명·독립운동 유물 매입
1월 18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과 헌법전문
1월 23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
1월 30일	NEWS1	'동학전봉준 동상 종로 건립' 서울시 최종결정 남아
2월 12일	위키트리	이대훈 시인, 동화책 '열세 살 동학대장 최동린' 펴내
2월 21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 달의 문화가 있는 날
2월 21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국가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2월 26일	NEWSis	정읍 동학마라톤대회, 3600여 건각 참가
2월 28일	프레시안	고부 들판에서 동학농민들의 함성을 듣다
3월 2일	금강일보	동학농민군의 넋, 송고한 뜻 기리다
3월 5일	OhmyNews	혁명했던 동학 언니, 스물두 살 이소사
3월 5일	동아일보	[어린이 책] 어린 몸으로 견뎌낸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3월 5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학술 연구논문 공모
3월 13일	전라일보	대통령 개헌안 '농업가치·동학정신' 반영되나
3월 14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9년만에 재개
3월 21일	경북일보	동학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시급함
3월 22일	전북일보	문화가 있는 날 짹 짹 누리세요
3월 22일	전라일보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3월 26일	영남일보	'기충민의 결기' 동학농민운동은 촛불집회의 시초였다
3월 26일	남도일보	동학농민혁명의 영웅, 무안의 배상옥
3월 27일	광주일보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5·18 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문화